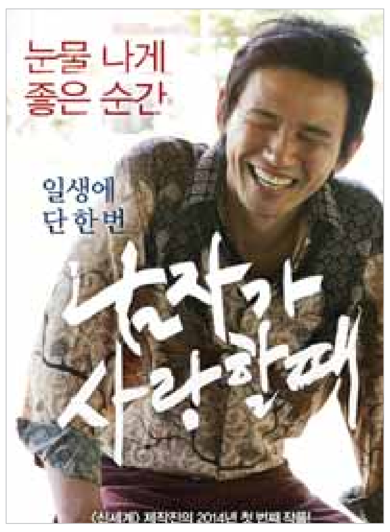
올해 설날 연휴를 기대하고 개봉하는 한국영화 중에 대작은 없다. 지난 22일 동시 개봉한 '수상한 그녀' 등 한국영화 세편은 소소한 이야기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흥행 질주 중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1000만 관객을 넘긴 '변호인'도 계속 관객들을 만난다. 성룡도 오랜만에 명절 시즌을 책임지려 돌아왔다.



설 연휴 영화 한편 보셔야죠~ 두편 봐도 좋습니다

수상하고 위험하고 사랑하고 피끓는다

극장가를 들었다 놨다~ 최신 영화들 푸짐

◇피끓는 청춘

1980년대 충남 홍성을 배경으로 고등학생들의 엇갈린 로맨스를 다룬 코미디 영화다. 모든 여고생을 사로잡는 전설의 카사노바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종석이 출연하며 '과속 스캔들', '늑대 소년'의 박보영이 불량기 많은 일진 여고생으로 호흡을 맞춘다. 여기에 모델 출신 연기자 김영광이 싸움짱으로, 아역배우 출신 이세영이 서울에서 온 전학생으로 출연한다. 이연우 감독의 데뷔작이다. 〈15세 관람가〉

◇수상한 그녀

스무살 꽃처녀의 몸으로 돌아간 욕쟁이 칠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정 사진을 찍고 나오는 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오말순은 스무살 오두리가 되어 빛나는 전성기를 즐겨 보기로 마음 먹는다. '써니',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심은경과 나문희, 박인환, 성동일 등 중견배우들의 연기가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15세 관람가〉

◇남자가 사랑할 때

사채업계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신세계' 등에서 강한 연기를 보여줬던 황정민이 첫사랑에 마음 설레하는 어설픈 순정남 역을 연기하며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출연중인 한혜진이 그의 첫사랑 역을 맡았다. '변호인'에서 차경감 역을 맡았던 곽도원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한동욱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15세 관람가〉

◇조선미녀삼총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왕의 밀명을 수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물이다. 하지원이 으뜸가는 미모와 버금가는 무공을 갖춘 실력과 리더 만능검객 진옥역을 맡았다. 그룹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가인과 강예원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가비와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접수하는 푼수떼기 주부검객 홍단으로 분해 사라진 십자경을 함께 찾아나선다. '울랄라 시스터즈'의 박제현 감독 작품이다. 〈12세 관람가〉

◇위험한 패밀리

'레옹'의 뤽 베송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범죄 액션물이다. 전직 범죄 조직 보스가 조직원의 밀고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 프랑스 한 작은 마을로 피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화려한 출연진이 돋보인다. 로버트 드니로, 미셸 파이퍼, 토미 리 존스가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폴리스 스토리 2014

액션스타 성룡의 대표적 시리즈로 지난해말 중국 개봉 당시 최고 흥행을 기록했던 액션물이다. 강력계 형사가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적의 인질이 돼 범죄를 소탕하는 이야기다.

딸을 만나기 위해 클럽을 찾은 강력계 형사 종 반장은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게 된다. 범인은 딸의 남자친구이자 클럽의 주인인 우. 종 반장은 딸을 지키기 위해 인질로 남고 인질로 잡힌 시민들이 모두 5년전 미해결 사건과 연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5세 관람가〉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의 명가 디즈니 스튜디오 작품으로 올해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언니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 왕국을 떠나고,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안나'는 언니를 찾아 환상적인 여정을 떠난다. 수록곡 'Let it go'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아름다운 화면과 함께 영화 내내 흘러 나오는 음악들이 인상적이다. 〈전체 관람가〉

◇넛잡: 땅콩 도둑들

한국, 캐나다, 미국이 제작에 참여한 4D 애니메이션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도시의 땅콩가게 습격에 나선 다람쥐 설리와 생쥐 버디의 모험을 담고 있다. 여기에 여장부 앤디와 호기로운 그레이슨 역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땅콩 가게로 잠입하고, 이곳이 은행털이범들의 위장 은신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다. 〈전체 관람가〉

◇변호인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인권 재판을 맡으며 세상의 불의에 맞서게 된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이 극의 모티브가 됐다. 1100만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 한국영화 역대 9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송강호의 완벽한 연기와 차경감역의 곽도원, 김영애, 오달수, 아이돌 출신 신예 임시완까지 뛰어난 연기가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설

다사다난 했던 한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찾아 뵙지 못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갑오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에
밝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원광신협 1599-4474